

# 류현진 공든 탑 불펜이 망쳤다

### 24일만에 복귀전 6이닝 1실점 호투 불펜 불쇼에 팀은 1-3 패 다저스, 디비전시리즈 1-2로 벼랑끝

부상에서 회복해 24일 만에 마운드로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가을야구의 중요한 승부처에서 빼어난 투구로 제 몫을 단단히 했다. 하지만 다저스는 류현진이 마운드를 떠난 이후 결승 홈런을 얻어맞고 패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류현진은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3차전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1홈런을 포함한 5안타를 내주고 1실점만 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다. 볼넷 하나를 허용했고 삼진은 네 개를 잡았다. 94개의 공을 던졌고 그 중 스트라이크는 59개였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7회초 2사 후 자신의 타석 때 대타 스코트 반슬라이크로 교체됐다. 부상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 류현진의 호투에도 불펜진이 허약한 다저스는 결국 1-3으로 졌다. 류현진에게 마운드를 넘겨받은 스코트 엘버트가 7회 콜튼 윙에게 결승 2점 홈런을 얻어맞아 다저스의 무릎이 꺾였다.

5전 3승제 디비전시리즈에서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를 내세우고도 1차전을 내줬다가 잭 그레인키의 활약 덕에 2차전을 승리한 다저스는 류현진의 역투에도 패배를 떠안고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궁지에 몰렸다.

물러설 곳이 없는 다저스는 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4차전에서는 1차전을 뒀 커쇼를 다시 선발로 내보낸다.

이날 류현진의 출전은 지난달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정규시즌 경기에서 어깨 통증을 느끼고 강판당한 이후 24일 만이다.

부상 치료에 전념한 류현진에게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세 번째 출전한 포스트시즌 경기다.

류현진은 1회부터 시속 94마일(약 151km)에 이르는 빠른 공을 던질 정도로 구속이 좋았고, 제구도 부상 이전 모습 그대로였다.

톱 타자 맷 카펜터를 121km의 커브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랜들 그리적 역시 커브로 루킹 삼진을 잡아내며 산뜻하게 시작했다. 맷 홀리데이에게 볼넷으로 첫 출루를 허용했지만 4번 조니 페달타를 3루수 땅볼로 요리하고 가볍게 1회를 넘겼다.

2회 연속안타로 무사 1·2루 상황을 맞았지만 존 제이를 삼진으로 쫓아내고 윙과 투수 레키를 내야 땅볼로 요리해 위기를 헤쳐나갔다.

류현진이 3회 첫 타자 카펜터에게 중월 솔로 홈런을 얻어맞았다. 1B-2S에서 단진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물리면서 팬스를 넘어갔다.

류현진은 4회 1사 1루에서 윙을 병살 처리하는 등 공 8개로 이닝을 마무리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5회에는 공 7개만 던지고 이날 처음 삼자범퇴로 막았다.

다저스가 6회초 드디어 균형을 되찾아왔다. 디비전시리즈 1차전 마지막 타석부터 7타석 연속 삼진을 당했던 야시엘 푸이그가 우선상을 흐르는 3루타를 때렸고 2사에서 핸리 라미레스가 우익수 쪽으로 동점 2루타를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다저스는 후속타 발발로 그대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연합뉴스



성적표 받아든 KIA 용병 3인방

## “재팬 시리즈서 만나자”

‘한신’ 오승환·‘소프트뱅크’ 이대호 PS 무대

일본 프로야구 첫 시즌을 보낸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과 일본 내 이적 후 첫해를 맞은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가 나란히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는다.

한신은 히로시마 도요카프가 6일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패해 센트럴리그 행운의 2위를 차지했다. 75승 1무 68패(승률 0.524)로 시즌을 마친 한신은 74승 2무 68패(승률 0.521)를 기록한 히로시마를 승률 3리 차로 제쳤다. 이로써 한신은 11월부터 열리는 클라이맥스시리즈 퍼스트스테이지 3경기를 모두 홈에서 치르는 권리를 얻었다. 또한 시리즈가 1승 1무 1패나 3무로 끝날 경우 한신이 클라이맥스시리즈 파이널스테이지 진출권을 얻는다.

일본 프로야구는 정규시즌 상위팀이 유리한 상황에서 포스트시즌을 치르게 하고자 클라이맥스시리즈 퍼스트스테이지에서 2위팀이 모든 홈경기를 치르고 3경기에서 동률(1승 1무 1패, 3무)이 나올 경우 2위팀에게 진출권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클라이맥스시리즈 파이널스테이지에서는 리그 1위팀이 1승을 안고 6전 4선승으로 시리즈를 치른다.

한신은 64경기에서 2승 4패 39세이브 평균자책점 1.76을 기록하고 팀이 치열한 순위다툼을 펼친 시즌 막판 5경기 연속 등판하는 투혼까지 보인 오승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퍼시픽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대호는 생애 첫 정규시즌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일본 언론도 소프트뱅크 우승 확정 후 “우승하고 싶어서 왔다”는 이대호의 소프트뱅크 입단 소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대호는 올 시즌 타율 0.300·19홈런·68타점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대호는 가을 무대에서도 팀의 상징인 4번타자로 활약한다. 우승을 차지한 소프트뱅크는 오릭스 버펄로스-니혼햄 파이터스전 승자와 15일부터 파이널스테이지를 치른다. 1승을 안고 뛰는 시리즈에서 승리하면 퍼시픽리그 우승팀의 타이틀을 안고 일본시리즈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 친화력 ‘필’ 잔류 기대



KIA팬으로 남기 위한 외국인 선수들의 테스트 무대가 진행 중이다.

올 시즌 KIA 엔트리에는 4명의 외국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일본 다승왕 출신의 홀튼이 세월을 피해가지 못하고 중도에 짐을 싸면서 좌완 토마스, 마무리 어센시오, 타자 필이 한국에서의 첫 가을을 보내고 있다.

2014시즌의 끝이 보이면서 남은 세 선수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올 시즌 외국인 선수 농사에 대한 구단의 반응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모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나마 필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며 잔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필은 6일 현재 0.311의 타율로 18홈런 60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했던 폭발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활약을 선보였다.

시범경기에서는 극심한 부진으로 코칭스태프내에서 교체 논의도 이뤄졌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찾으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

## 부진 ‘어센시오’ 작별 수순



여졌다. 무엇보다 뛰어난 친화력과 팀워크가 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어센시오와는 작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시즌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마무리’는 마운드 운영 전략 부재 속 어센시오의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실패로 마무리 됐다. 좋은 공을 가지고 있지만 돌출 행동과 마무리다운 피칭을 보이지 못하면서 선수단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몇 년째 마무리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꼬여버린 마운드 운영을 위해서도 내부 육성이 필요한 상태다. 타이거즈의 힘을 상징했던 ‘선발 야구’의 부활을 위해서도 마무리보다는 선발 자원의 영입을 노릴 전망이다.

토마스에게는 테스트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6전7기 끝에 첫 승을 기록한 지난 3일 토마스는 남은 등판에 대한 각오를 묻는 질문에 “쇼케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KIA라는 팀이 좋다. 내년 시즌에도 이 팀에서 뛰고 싶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언급한 토마스는 자신의 거취

## 선전 ‘토마스’ ?



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남은 경기가 자신의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상대에게 전력이 노출되면서 쉽게 공력을 당한다는 점에서 교체 쪽에 더 무게가 기울기는 하지만 잔류 여지는 남아있다.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피칭과 빠른 적응력이 장점이다. 구단입장에서는 소사의 케이스도 걸린다. 소사의 퇴출을 놓고 엇갈렸던 찬반의견. 결국 KIA는 남은 팀이 된 소사를 놓고 뒤늦게 땅을 쳤다. 시즌 중반 넥센 유니폼을 입은 소사는 18경기에서 113.2이닝을 소화하며 9승2패를 거뒀다. ‘백센 효과’를 빼더라도 이닝 소화력 만으로도 KIA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활약이었다.

남은 7경기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내년 시즌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